

## 중부지역에서 고구마 삽식시기와 생육기간이 수량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

황세근<sup>1\*</sup>, 윤건식<sup>1</sup>, 김은정<sup>1</sup>, 박재호<sup>1</sup>, 이경자<sup>1</sup>, 김영호<sup>1</sup>, 홍성택<sup>1</sup>, 김홍식<sup>2</sup>

<sup>1</sup>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충북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sup>2</sup>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북대로 충북대학교 식물자원학과

### [서론]

중부지역에서의 고구마의 삽식시기와 생육기간에 따른 수량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다.

### [재료 및 방법]

다호미와 울미에 대한 삽식시기 3처리(5월 15일, 5월 25일, 6월 5일)과 생육기간 3처리(100일 115일 130일)에 따른 생육상황, 수량구성요소 및 저장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 [결과 및 고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중부지역인 충북농업기술원에서 다호미와 울미를 품종으로 공시하여 삽식시기와 생육기간에 따른 생육 및 수량성을 검토하였다. 넝쿨길이는 다호미는 삽식시기가 늦을수록 작아지는 경향이었으나 울미는 반대로 큰 경향이었으며, 생육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체적으로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넝쿨무게, 마디수, 분지수는 삽식시기와 생육기간에 따른 일정한 경향이 없었다. 주당괴근수는 삽식시기가 늦을수록 적어지는 경향을 보였고, 생육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괴근평균중은 삽식시기 간에는 일정한 경향이 없었으나 생육기간이 길어질수록 무거워지는 경향을 보였다. 전분가와 전분수량은 삽식시기가 늦어질수록 적어졌으며, 생육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지고 증가되었다. 총괴근수량과 상품 괴근수량은 삽식시기가 늦어질수록 적어지는 경향을 보였고, 생육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였다. 저장기간에 따른 감모율은 울미가 다호미보다는 수확 후 120일까지 감모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삽식시기와 생육기간 간에는 일정한 경향은 없었다. 9월과 10월의 평균기온 분석결과 2016년에는 평년에 비하여 2℃정도 높았으며, 특히 9월 하순은 평년에 비하여 2.5℃ 높았다. 공동과 발생상황 조사결과, 2015년에는 발생되지 않고, 2016년의 수확 후 150일까지 다호미 품종은 5월 15일 삽식의 경우 거의 55% 정도 발생하였으며, 다호미 6월 5일 삽식구는 수확 후 150일후 처음으로 조사되었고, 이 때 발생율은 14.4% 였으며, 울미의 경우는 수확 후 150일까지 전혀 발생되지 않았다.

### [사서]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 (과제번호: PJ90695203)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주저자: Tel. 043-220-5561, E-mail. guse@korea.kr